은행 (Positive)

1월 연체율: 증가율이 어디서 안정화될지가 관건

▶ Analyst 김도하 doha.kim@hanwha.com 3772-7479

국내은행의 2024년 1월 말 연체율은 0.45%(+14bp YoY)로 상승했습니다. 연체잔액의 증가율은 눈에 띄게 하락 중입니다. 단, 여전히 대출 증가율보다 10 배 빠르게(YoY 기준) 늘어나고 있습니다. 대출금리가 최고점에서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최근 11년래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, 속도는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의 추세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.

국내은행 1월 말 연체율 0.45%(+14bp YoY)로 상승

- 국내은행의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(1개월 이상 연체 기준)은 0.45%(+14bp YoY)로 상승 (그림 1~6)
- 법인 중소기업 연체율은 0.62%(+18bp YoY), 자영업자(SOHO) 연체율은 0.56%(+23bp YoY)로 여전히 상승 중이나 그 폭은 둔화됨. 대기업 연체율은 0.12%(+3bp YoY)로 낮은 수준에 머무름
- 가계 연체율은 0.38%(+10bp YoY)로 상승. 신용 등 일반대출은 0.74%(+19bp YoY)로 상승폭이 줄어듦. 주택대출 연체율 또한 0.25%로 3개월 전과 같은 수준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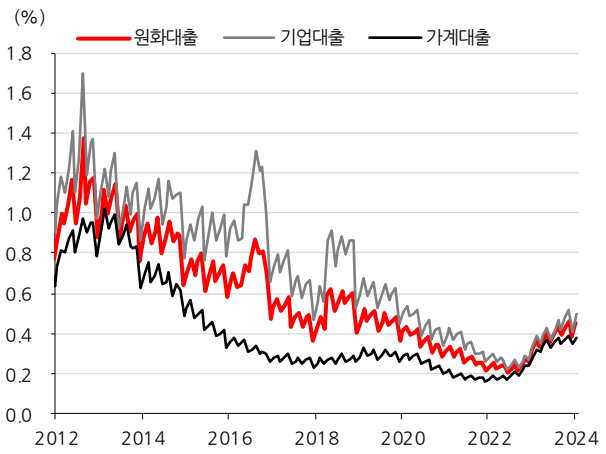
신규도 늘고 정리도 늘면서, 연체잔액은 52% YoY 증가

- 은행업종 연체채권 잔액은 1월 말 10.0조원(+52% YoY)으로 증가 (그림7)
- **기업 (추정)**: 1월 말 기업 연체잔액은 +57% YoY로 추산. 자영업자 연체는 13개월 만에 증가율이 70%대까지 낮아지는 등 추세적인 증가율 하락을 지속. 법인 중소기업의 연체는 51% YoY 증가 (그림10)
- **가계 (추정)**: 1월 말 가계 연체잔액은 +41% YoY로 추산. 일반대출의 연체잔액 증가율은 +28% YoY로 14개월 만에 증가율이 20%대로 낮아짐. 주택대출은 49% YoY 증가해 급격한 증가율 하락을 나타냄 (그림10)
- 1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 규모는 2.9조원, 신규 연체율은 0.13%를 기록. 조선사 한 곳의 연체를 제외하면, 신규 연체율은 2016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. 한편 월 중 정리(상·매각)된 연체채권은 1.3조원으로 117% YoY 증가해 대규모 정리가 있었던 연말 직후의 월로써는 높은 수준을 기록 (그림8)

연체 증가 속도가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되는지가 관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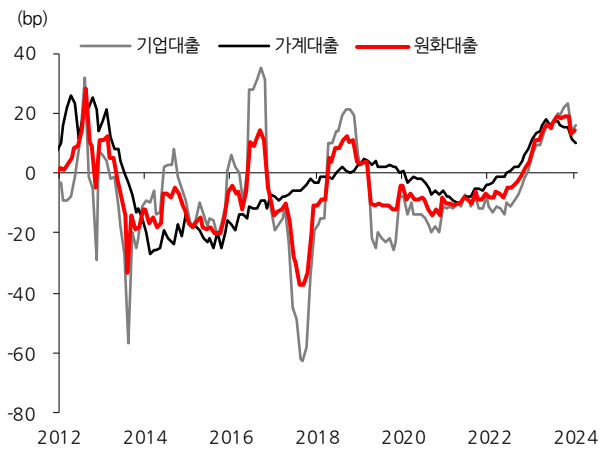
- 가파르게 치솟았던 연체잔액 증가율은 완연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. 잔액 증가율이 상승 전환한 이래 고점에 이를 때까지 자영업자는 1년 반, 가계 주택 및 신용은 각각 2년가량 소요되었고, 이후 7~9개월 간 증가율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
- 그럼에도 연체잔액의 증가율이 그 모수인 대출잔액의 증가율(+5% YoY)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여전함. 2024년의 관건은 연체 증가율이 어느 수준에서 안정화되는지가 될 것
- 연체율 상승의 주된 원인은 높아진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확대라고 판단. 신규 대출금리는 지난 10~11월을 고점으로 하락 중이나, 그 하락한 금리도 4Q22~4Q23 구간을 제외하면 최근 11년래 가장 높은 수준임. 차주의 부담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, 속도는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의 추세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

[그림1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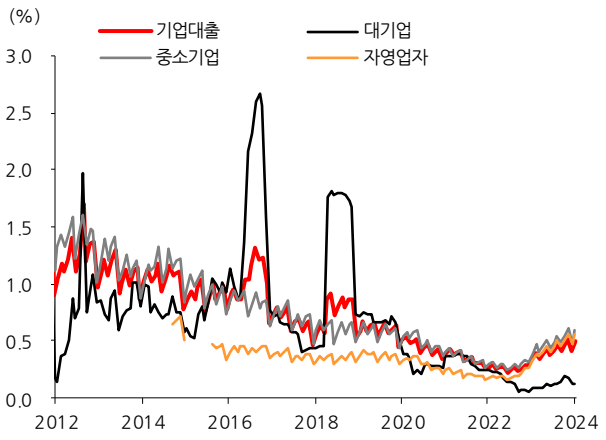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2] 국내은행 차주별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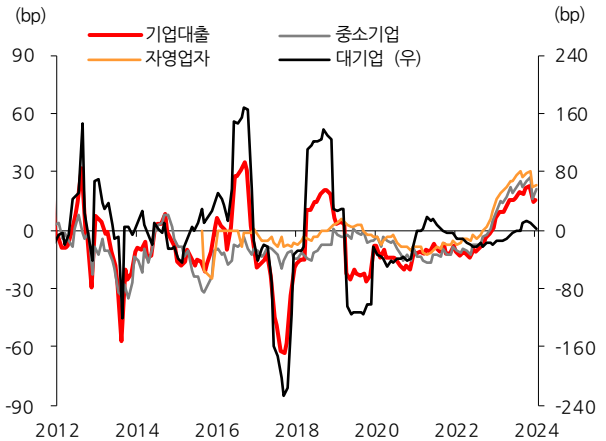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3]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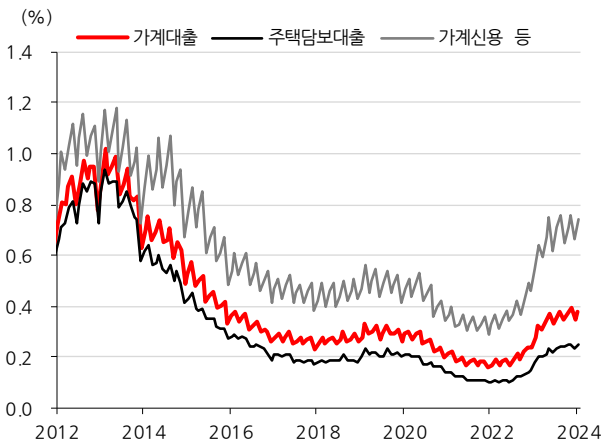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4] 기업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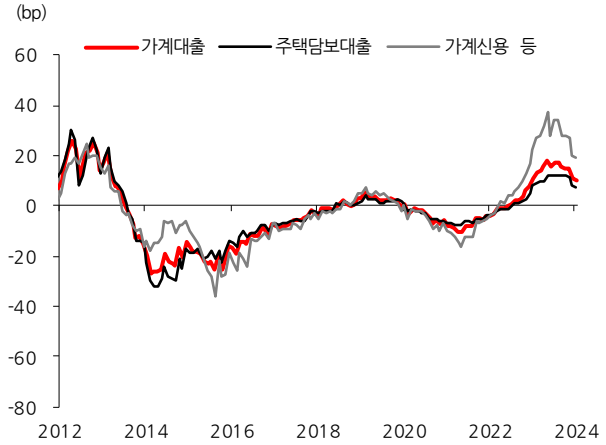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5]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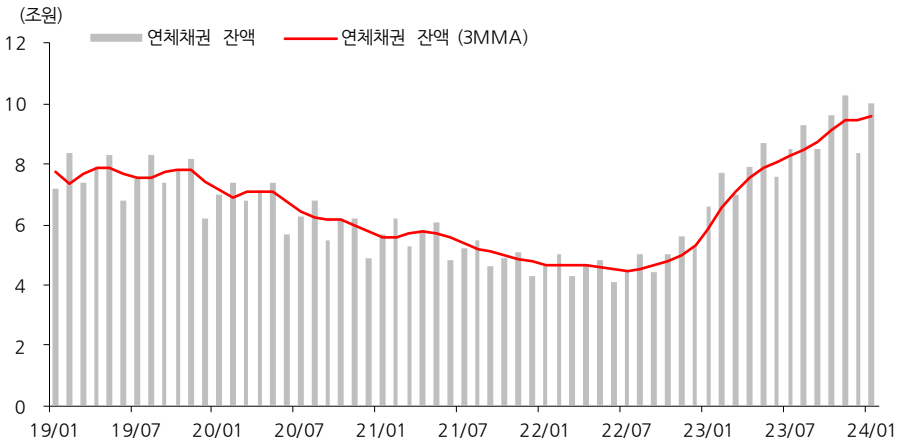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6] 가계대출 연체율의 YoY 변동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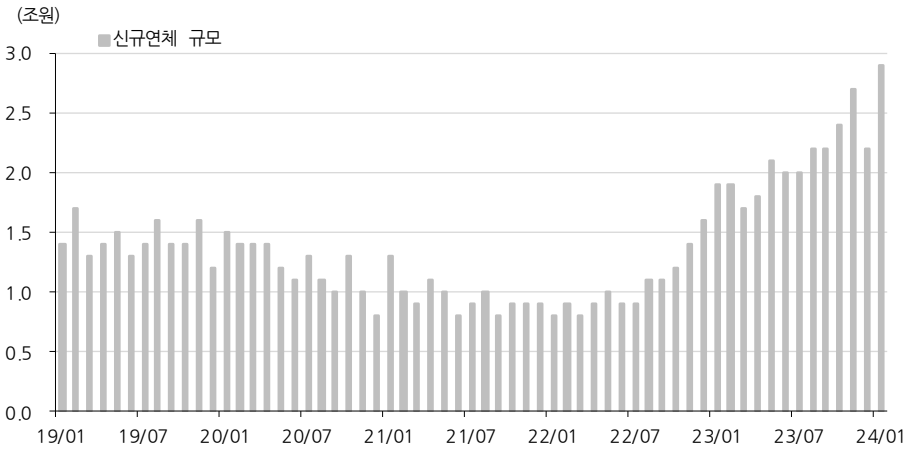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7] 국내은행 연체채권 잔액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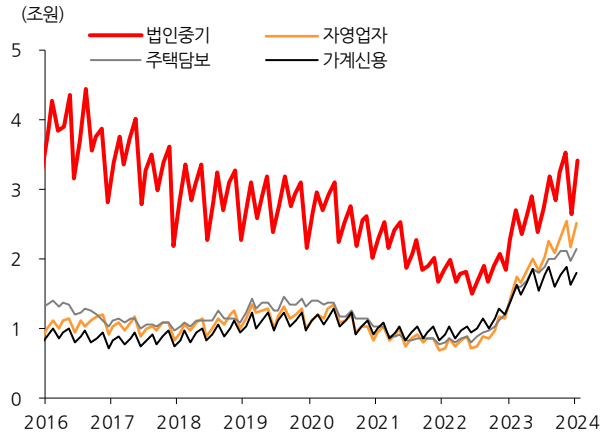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8] 국내은행 월 중 신규 연체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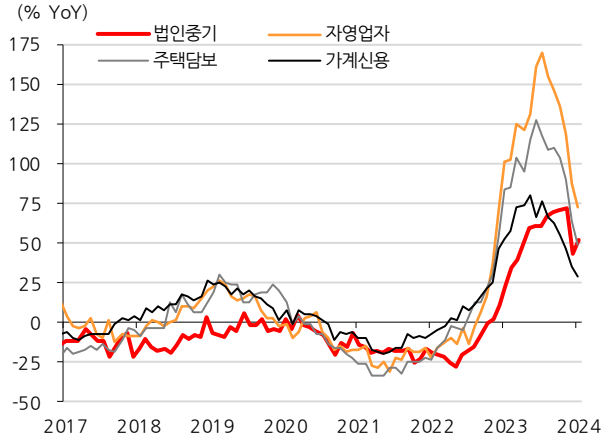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9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 규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그림10] 차주별 연체채권 잔액의 YoY 증가율 (추정)



자료: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[Compliance Notice] (공표일: 2024 년 3 월 29 일)

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,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(김도하)
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[종목 투자등급]

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+15%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(매수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또한 절대수익률 -15~+15%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(보유) 의견을, -15%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(매도) 의견을 제시합니다.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,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.

[산업 투자의견]

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(긍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(중립적) 의견을,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(부정적)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.

[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] (기준일: 2023 년 12 월 31 일)

투자등급	매수	중립	매도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중	95.2%	4.8%	0.0%	100.0%